

# 광양형 24시간 어린이집,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인다

## 365일 빈틈없는 '광양형 돌봄망' 구축... 2025년 이용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지난해 도입한 '광양형 24시간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 수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보호자의 야간·주말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형 24시간 어린이집'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보호자의 근무 여건을 반영해 야간·심야·긴급 상황에도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이며, 현재 광양읍권은 국공립 슬기어린이집, 중마동권은 민간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이다. 예약은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 'MY광양'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7월 운영 1주년을 맞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24년 하반기 597명에서 2025년 상반기 1,043명으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도입 이후 많은 가정이 야간·주말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보호자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인화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돌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출산·양육·교육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전주기 아동 지원 체계를 완성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형 24시간 어린이집 외에도 ▲기준 보육시간(7:30~19:30)



이후 최대 24시까지 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야간연장어린이집 35개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영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 10개소 11개 반 ▲장애아 전문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5개소를 운영하며,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 나주시, 에너지밸리 취업역량 강화교육 참여자 모집

#### 지역 청년 대상 실무 교육, 국가자격증 취득 전액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는 29일 지역 청년과 고등학생들의 안정적 취업과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에너지밸리 연계 취업역량 강화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료를 전액 지원하며 실무 중심 교육과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돕는다.

이번 사업은 나주시와 나주공업고등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전문 기술 습득과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7일 나주시와 나주공고는 지역 인재 육성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과정 기획과 대상자 선발을 맡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의 나주시 거주 청년으로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 16시까지 가능하며 나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방문 또는 팩스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정원은 8명에서 15명 이내로 최종 선발자는 9월 12일 개별 통보된다.

교육은 오는 9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지게차, 굴착기, 운수운틀 기능사, 전기용접 등 국가기술자격 과정과 함께 CAD, 컴퓨터활용능력 교육,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 면접 대비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국가 공인 자격시험 응시료도 필기 1회, 실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공고와 함께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나주공고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뿐 아니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청년이 참여해 개인의 성장과 지역 산업 발전에 함께 이바지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9

### 영광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각 사업별 지원조건으로 먼저, 점포 임대료 지원은 영광군에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5개월간의 평균 임대료 수준에 따라 업체당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음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끝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광군에 5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장흥군,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9월 재개장

전남 장흥군은 오는 9월 3일 회진면에 위치한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을 시범 개장하고, 9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은 2008년 첫 개장 이후 감성돔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데크형 바다낚시터다. 초보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전국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였으나, 코로나19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휴장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군은 재개장을 앞두고 주요 시설을 복구하고 전면 정비를 마쳤다. 운영일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장한다. 단, 시설 노후화로 인해 수상 펜션과 수상 낚시광장은 운영하지 않는다. /장흥군 제공



#### 구례군, 산동 나들이위터파크 지역경제를 살린다!

전남 구례군이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산동 나들이위터파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시설을 보강한 위터파크는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44일간 무료로 개장되었으며, 관외 4,500명, 관내 1,500명 등 총 6,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추가 설치하고, 수질관리 전담팀과 안전요원을 대폭 보강하여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위터파크는 바다분수 10종 26개의 물놀이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그늘막과 피크닉 테이블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구례/한정호 기자



#### 무안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의 날' 온기나눔 활동 추진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우리동네복지기동대의 날"을 맞이하여 복권기금을 활용해 운남면 호우피해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이날 ▲군·운남면 복지기동대 ▲무안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한전 MCS 무안지점 ▲무안군중합사회복지관 ▲한국부인회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40여 명이 참여해 피해 가구의 노후화된 주거지 정비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해당 가구는 지난 3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집안까지 침수되어 주택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복지기동대 및 민관 협력 기관단체 참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내·외부 청소 및 도배·장판 교체, 침수 피해 쓰레기 배출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무안군 제공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